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2020년 9월 기준 정기선 점유율 및 소유 및 용선, 머스크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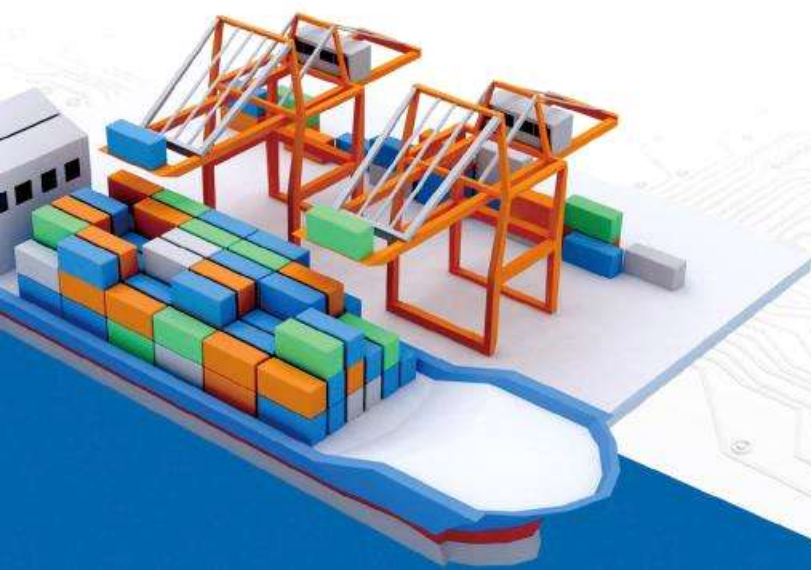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MSC, 노르웨이 화학업체와 선체 부착물 제거 계약 체결
2. 미국 롱비치항, 코로나19 위기 중 사상 최대 실적 달성
3. 글로벌 무역, 코로나19 닫고 작년 수준에 근접
4. 머스크 라인, 물류 사업 중심의 조직개편 계획 발표
5. PSA, 인도 뭄바이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명사 스피치

“해운산업이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가 풍력이다. 우리는 풍력추진선인 오션버드 상용화를 통해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알레니우스마린(Wallenius Marine) 페르투네루 COO
(2020. 9. 16 /한국해운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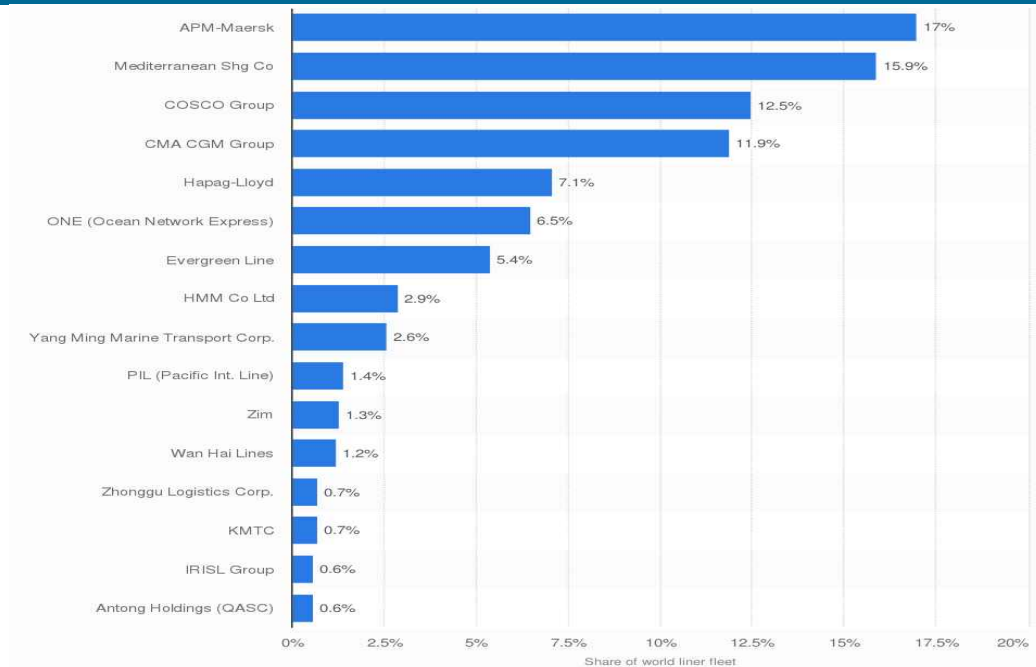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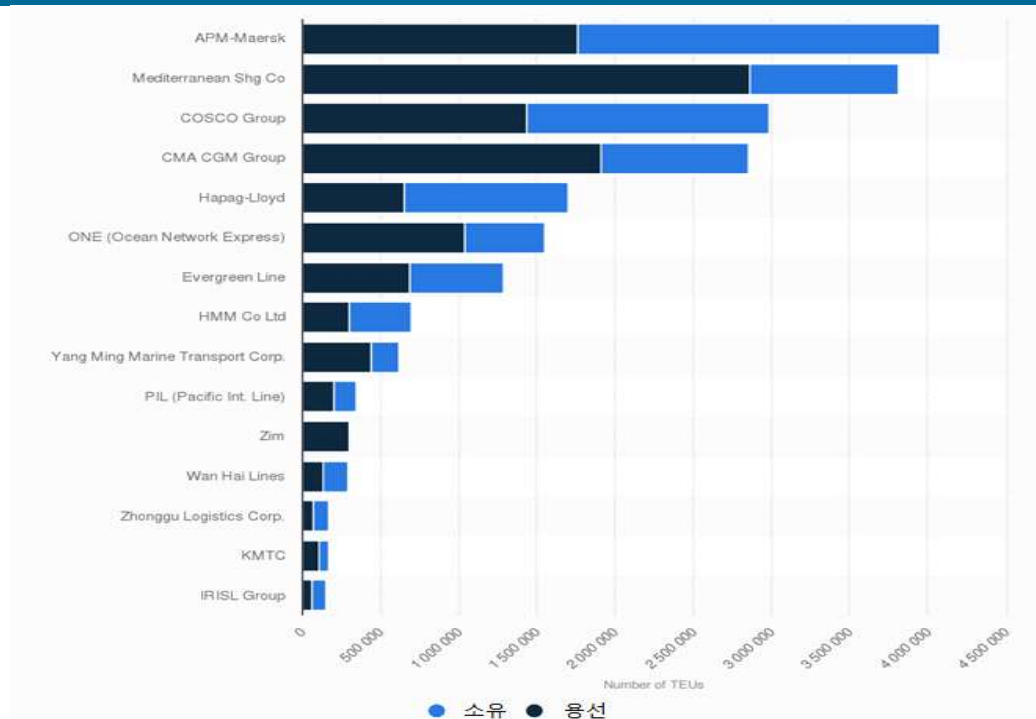
2020년 9월 기준 정기선 점유율 및 소유 및 용선, 머스크 최대

세계 주요 정기선사 점유율 순위('20. 9. 2 기준)



자료: Alphaliner, 2020.9.2

세계 주요 정기선사 소유 및 용선 현황('20. 9. 3 기준)



자료: Alphaliner, 2020.9.3



- 2020년 9월 2일 20피트 TEU 기준 전 세계 선사들의 주요 정기선 운항 점유율은 머스크가 17%로 가장 높음
 - 머스크의 총 선복량은 4,116,300TEU이며 선박 수는 691척으로 조사 선사 중 가장 많은 선복량과 선박 수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소유 선박 수도 307척(2,318,742 TEU)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음
 - MSC는 15.9%, COSCO는 12.5 %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MSC는 총 선복량 3,822,639TEU, 574척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소유 선박 수는 139척(961,975TEU)으로 COSCO 보다 적지만 용선 수는 435척(2,860,664TEU)으로 조사 선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COSCO는 총 선복량 3,002,552TEU, 선박 수 495척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소유 선박 수는 173척(1,551,249TEU)으로 MSC보다 소유 선박 보유수가 많음
 - 우리나라 해운기업인 HMM은 2.9%로 8위를 차지하였음
 - HMM의 총 선복량은 710,317TEU로 선박 수 70척, 소유 선박 수는 26척(417,054TEU)을 기록함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9.16.), www.alphaliner.axsmarine.com(검색일: 2020.9.16.)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MSC, 노르웨이 화학업체와 선체 부착물 제거 계약 체결

- 지난 9월 8일 세계 3대 선사 중 하나인 MSC가 선체 부착물(Bio-fouling)을 제거하기 위해 노르웨이 화학업체인 요턴(Jotun)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함
 - 선체 부착물은 선박의 엔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서 엔진의 과부하와 과도한 연료 소비를 촉진하는 원인임
 - 요턴은 스웨덴 기업 셈콘(Semcon)과 공동으로 선체 부착물을 청소해주는 선체 스케이팅 솔루션(HSS, Hull Staking Solution)을 개발하였음
- HSS는 선체에 전용 코팅을 함으로써 해양생물이 선체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특수 설계된 로봇을 선체에 부착해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헐스케이터(Hullskater)'라고 부르는 로봇은 선체에 붙어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며, 인터넷(4G)에 연결해 외부 관제센터에서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청소 작업을 원격 조작할 수 있음

선체 부착물을 청소하는 로봇 헐스케이터(Hullskater)



자료 : <https://semcon.com/jotunhullskater>

- MSC는 14,000TEU급 선박에 HSS를 운영하게 되면 연간 약 360만 달러(한화 42억 3천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12.5% 저감하는 효과를 통해 선박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게 되며,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offshore-energy.biz(검색일: 2020.9.14.).

황선일 부연구위원

051-797-4675, shwang@kmi.re.kr

미국 롱비치항, 코로나19 위기 중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롱비치항의 8월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함
 - 2020년 1월~7월까지의 처리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8월 처리 실적은 증가함
 - 수입 364,792TEU로 13%, 수출 126,177TEU로 1%, 공컨테이너 234,642TEU로 8.5% 증가하며, 2020년 8월 총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롱비치항 개항 109년 역사상 최고치인 725,610TEU를 기록함
- 처리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계절효과 등임
 - 소매업체들의 연말 쇼핑 시즌 준비로 인해 8~10월은 일반적으로 성수기에 속하며 8월은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증가하는 시점임
 - 주택 보수제품, 가정용 운동기구 등의 수요 증가가 처리 실적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 운항이 취소된 선박이 입항하며 단기 처리 실적이 증가함

미국 롱비치항



자료 : <https://www.marineinsight.com/>(검색일: 2020.9.14)

-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경계가 필요함
 - 롱비치항의 전무이사는 8월은 성수기의 시작이며 하역 실적이 증가했지만 향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국제 무역 및 국제 경제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marineinsight.com(검색일: 202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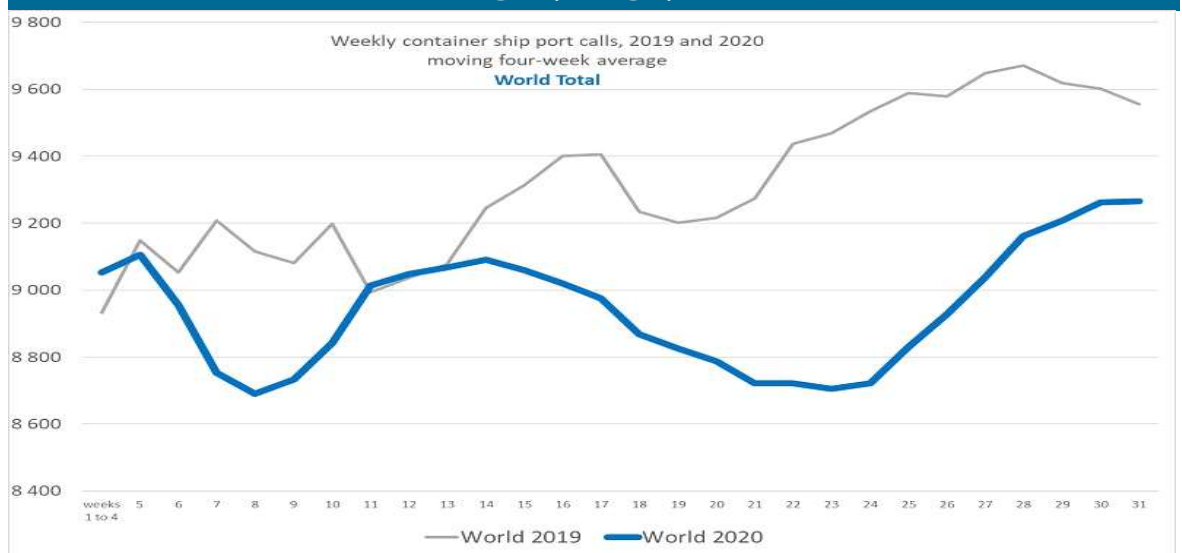
김성아 전문연구원

051-797-4792 ksa@kmi.re.kr

글로벌 무역, 코로나19 딛고 작년 수준에 근접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전 세계 컨테이너선 입출항 수가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에 27%의 급감을 보였던 글로벌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짐
-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무역 활동 및 여행을 제한함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전 세계 컨테이너선 입출항 수는 평균 8,7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UNCTAD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입출항 수(주간 평균)는 증가세로 돌아서 8월 초에는 9,265건으로 1년 전보다 겨우 3% 낮은 수준을 보였음
- UNCTAD의 시리만 물류기술본부장은 “전 세계 공산품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선적되는데, 최근 컨테이너선 입출항 수 증가세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신호로서 정책수립자들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세계 컨테이너선 입출항 수(주간 평균) - 2019년 및 2020년



자료 :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466>(검색일: 2020.9.15)

■ 참고자료 : www.unctad.org(검색일: 2020.9.15)

이경미 연구원

051-797-4644, kmlee@kmi.re.kr

1)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직속기구



머스크 라인, 물류 사업 중심의 조직개편 계획 발표

- 9월 1일 덴마크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Maersk Line)은 연내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였음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룹 내 물류 사업을 하는 자회사 담코(Damco)와 남북항로 중심 해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프마린(Safmarine)을 머스크 라인과 통합해 물류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임
 - 또한 2017년에 매수한 컨테이너 선사 함부르크 수드(Hamburg Sud)의 기능을 흡수하는 등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머스크 그룹에서 물류 기능을 담당해 온 담코는 머스크 라인과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왔고 브랜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머스크 라인과 완전히 일체화될 예정임
 - 담코는 공급사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 운송된 화물을 트레일러 등을 통해 목적지까지 내륙 수송해 왔음
- 머스크 그룹의 8월 실적 발표에서 종합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동 그룹의 미션이 수차례 언급되었음
 - 머스크 그룹은 해상운송 사업을 의미하는 오션(Ocean)뿐만 아니라 내륙수송 등 서플라이 체인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로지스틱 & 서비스(Logistics & Service)를 강화한다는 계획임
 -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 그룹의 서비스는 해상수송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종합 물류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재천명함
- 선박 대형화로 적당 컨테이너 처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공컨테이너 관리가 복잡해지면서 선사가 해상수송에 전념하는 흐름이 발생했었음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해상수송에 전념하는 경향이 강화된 바 있음
 - 선사들이 해상운송에 집중한 결과 화주가 바라는 door to door 서비스와 형태가 상이해졌으며, 이로 인해 선사 운임 협상력이 악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8년 이후 머스크 라인 등 글로벌 해운 선사들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통합 전략(vertical strategy)으로 선회하고 있음
 - 상류를 의미하는 port to port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하류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port to door를 도모해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아우르고자 함
 - 머스크 라인은 실적 발표에서 "해상수송을 토대로 고객의 공급사슬 전체에 대응하는 것이 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부가가치이다"라고 밝혔음
- 화주에게 선택받기 위한 메가 케리어(mega carrier)들의 수직통합 전략이 주목됨

■ 참고자료 : www.secure.marinavi.com(검색일: 2020.9.10)

안영균 전문연구원

051-797-4643, ahnyg@kmi.re.kr

PSA, 인도 뭄바이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 PSA 뭄바이는 Direct Port Delivery(DPD) 고객을 위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인도의 디지털 문서화 플랫폼 ODeX와 협약을 체결함
 - 이 시스템은 자와할랄 네루항(JNPT)에서 PSA 뭄바이와 ODeX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ODeX 포털은 실시간 업데이트, 문서 업로드 및 수정, 전자 지불 및 배송확인 정보를 제공함
 - 2020년 9월 15일부터 PSA 뭄바이의 DPD 고객은 ODeX의 플랫폼에서 문서를 처리하고, 터미널 처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 PSA 뭄바이의 DPD고객은 '클릭→온라인 결제→DPD 컨테이너 배송'의 온라인 원스톱 포털을 통해 문서화, 결제 및 배송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음
- PSA 뭄바이의 전무이사인 Sivakumar K는 이 시스템이 DPD고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결제 및 문서화 시스템을 제공하여 상품을 최대한 빨리 배송한다고 언급함
 - 또한, 터미널과 이용자 간 빠르고 원활한 정보 흐름은 터미널을 통한 컨테이너의 물리적 흐름만큼 중요하며, ODeX의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힘
- ODeX의 전무이사 Liji Nowal은 ODeX를 통해 PSA 뭄바이의 고객을 위한 전자 지불 플랫폼을 가동함으로써 화물 출하시 지불 지연이 완전히 제거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https://www.nyk.com>.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2020.8.18).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